

한국어 의미학 27, 243-265 (2008. 12. 31.)

신체어 감정 관용 표현의 서술어 의미 연구

— 긴장과 분노 감정 표현을 중심으로 —*

정 성 미

(강원대학교)

<Abstract>

Jung Sung Mi. 2008. Study of the predicate meaning About Body Word Idiom : Centering on Predicate Sentence about "Tension and Anger". *Korean Semantics, 27*. In the study among body words to express feelings, it is founded that predicate of a sentence with body-words connects what kind of feeling expression occur. Though the expression of "tension" idiom keeps both the inside and outside body-words, it has more deep connections with inside body words. In the case of the outside body-word "*Chest*", it needs to belong to grouping of inside body-words because it strongly keeps the meaning of "*mind*" and "*heart*".

The common meaning nature of predicate sentence is "Heat", "Eruption", "Tough", "Heat beating", and "Pain". Among them, the most frequent expression predicate is the common nature "Heat".

"Tension" is the emotion which is not active and not easy to observed. Because of this kind of point, inside body words can be easily distributed in predicate sentence through the meaning nature of "Heat", "Eruption", "Tough", and "Heat beating". We can observed how the expression of "Tension" connects to the predicate of sentence. Expression of Anger is much stronger than "Tension" and it has clear character. So when the expression of "Anger" is compared with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56)

“Tension”, I can find that the expression of “Eye” becomes distributed high as an outside body words and low as an inside body words.

핵심어: 관용어(Idioms), 신체어(Body Terms), 감정(emotion), 은유(metaphor), 유의 관계(similar relation), 변이형(variation)

1. 서론

우리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고 살며, 자신의 감정은 몸이나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기쁘면 입 꼬리를 올리거나 이를 드러내어 웃는다. 슬프면 낮빛이 어둡거나, 심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어깨를 들썩이기도 한다.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을 치뜨게 된다. 인간은 인간의 몸으로 여러 감정을 표현한다.

또한 우리는 자기의 감정을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 언어로 표현되는 감정 표현은 몸으로 표현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몸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감정까지도 언어는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에는 신체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관용 표현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용 표현은 감정을 완곡하게 표현한다.

관용 표현은 오래도록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형성된 것으로, 언중의 근본적인 사고나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게 된다. 특히 신체어는 기초어휘로서 은유, 환유를 통해 다양한 의미의 관용 표현을 구성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한국인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 온 신체어 감정 관용 표현 내에서 어떤 서술어가 어떤 신체어와 함께 어떤 종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본고는 ‘긴장’, ‘분노’의 감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신체어+서술어’가 합성된 구조의 관용 표현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우선 국립국어원의 관용 표현검색기를 통해 검색한 관용 표현 중, 신체어가 구성 요소이면서 전체 의미가 감정과 관련이 있는 관용 표현으로 하였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관용 표현을 더 보충하였다(이상 394개). 이미 신체어의 개별 의미 중에 ‘마음’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원적으로 신체어인 것은 대상에 포함시켰고 신체어와 관련된 분비물 등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관용 표현은 신체어를 중심으로 볼 때 크게 내부 신체어와 외부 신체어로 나눌 수 있다. 내부 신체어에는 18개의 신체어가 분포되어 있는데 18개의 내부 신체어 중에는 지시적 의미에서는 외부 신체어에 해당하는 ‘가슴’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간’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은 ‘속>창자>피’ 순이다. ‘간담, 애간장’은 두 개의 신체어로 구성된 형태이다. ‘간담’은 ‘간과 쓸개’를, ‘애간장’은 ‘애(창자, 쓸개, 간)와 간장’을 결합한 어휘이다. 관용 표현에서 내부 신체어들은 그 구체적인 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미를 지니며 겉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게 된다.

‘가슴’과 ‘복장’은 지시적 의미로는 외부 신체어이기는 하나, 관용 표현에서의 ‘가슴’과 ‘복장’은 ‘마음’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내부 신체어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내부 신체어로 분류하였다. 또한 내부 신체어에는 분비물도 포함되어 있다. ‘똥’으로 분류한 ‘똥줄’은 급하게 내깔기는 똥의 줄기나, 배알, 특히 큰창자 부분을 낫잡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고 ‘똥끝’은 똥구멍으로부터 나오는 굵고 긴 똥의 앞부분을 일컫는 말이다. 긴장하게 되면 대장이 예민한 사람은 신경성 대장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분비물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봐서 내부 신체어의 분비물로 분류하였다.

내부 신체어																	
가슴	복장	간(장)	간담	골	골수	배알	비위	뼈	심장	창자	애	애간장	허과	속	땀	피	똥
40	6	22	4	3	1	2	5	7	3	11	2	6	2	17	5	11	4
총계 : 151																	

<표 1> 내부 신체어의 분포

외부 신체어는 22개의 어휘로 ‘눈’이 가장 많이 분포되고(79개), ‘입>얼굴>목’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감정은 우리의 몸을 통해 표현되는데, 분포 순으로 볼 때, 우리 몸 중에서도 얼굴, 얼굴 중에서도 눈, 입 등을 대표적인 감정 표현 신체어로 볼 수 있다.

내부 신체어 18개로 표현된 본고의 연구 대상 감정 관용 표현은 151개이고 외부 신체어 22개로 표현된 감정 관용 표현은 243개이다.

외부신체어										
귀	뺨	눈	다리	등	머리	목	발	배	볼	사지
3	7	79	2	8	7	13	6	9	2	1
손	어깨	얼굴	오금	이	이마	입	코	살	허리	혀
4	5	24	2	9	3	34	11	1	4	9
총계 : 243										

<표 2> 외부 신체어의 분포

내부 신체어는 주로 관찰할 수 없고, 외부 신체어는 내부 신체어에 비해 관찰이 용이하다. 이는 감정의 종류에 따라 관찰 가능 여부에 있어 차이는 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관용 표현 내에서 내부 신체어와 외부 신체어의 분포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 연구 방법

관용표현의 연구 방법 중 은유 연구를 토대로 한 연구가 있다. 김향숙(2003)은 감정관용표현을 연구하는데 Lokoff & Johnson(1980)에서의 ‘개념적

은유2)'의 이론을 통해 감정표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정희자(2002)는 관용어의 신체어들의 의미가 은유 또는 환유로 확장되어 사용된다고 하였다. 우형식(1988)은 어휘의미론을 토대로 신체어를 한 의미장으로 보고 어휘 사이의 관계성을 검토하였다.

기존연구에서 신체어로 구성된 관용 표현은 신체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체어들을 중심으로 감정의 유형을 살펴보는 연구는 다양한 신체 부위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종합적으로 사용되므로 그 대응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禮記·禮運>에서는 감정을 칠정(七情)이라 해서 일곱 개로 나누고 있는데, 칠정은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慾)이다. 관용 표현에 표현되는 감정은 일곱 개로 분류하기 어려운 감정들도 있다. 논자는 <禮記·禮運>을 바탕으로 하여 감정을 크게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慾)과 긴장(緊張), 경(驚), 치(恥)의 3개의 감정을 포함한 10개 감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관용 표현의 의미를 감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관용 표현의 뜻풀이를 중심으로 10개 감정에 분류를 했는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감정으로 아우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

2) Lokoff & Johnson(1980)의 '개념적 은유'란 은유를 경험의 한 영역 즉 근원영역에서부터 다른 경험의 영역 즉 목표영역으로의 체계적인 인지적 사상이라고 하였다(김향숙, 2003:27).

감정	유사 감정
희(喜)	근심·걱정이 없어짐, 기쁨, 자부심, 마음이 쏠림, 마음 편함, 맘에 들, 상쾌, 기분이 좋음, 웃음, 원함 풀림, 으쓱해짐, 좋게 여김, 좋아함, 편안, 홀가분한 마음, 황홀, 흡족함
노(怒)	분노, 부아, 독기, 불만, 빼짐
애(哀)	슬픔, 애달픔, 가엾음
애(愛)	관심, 보고 싶음, 사랑, 존경
오(惡)	거북함, 원한, 기분이 좋지 않음, 독한 마음, 마뜩하지 않음, 마음 상함, 모진 마음, 무관심, 보기 싫음, 부담, 심술, 질투, 아니꼬움, 언짢음, 업신여김, 외면, 유감, 음흉, 지긋지긋함, 찻찻함, 혐오, 흡족하지 않음
욕(慾)	감정이 격해짐, 의욕, 결심, 욕심
구(懼)	겁, 두려움, 무서움
긴장(緊張)	걱정, 속이 탐, 초조, 긴장, 안타까움, 괴로움, 근심, 아찔함, 당황, 두근거림, 불안, 안달, 애씀, 압박
경(驚)	기막힘, 놀람, 당황, 어이없음, 충격
치(恥)	땀타지 못함, 창피, 부끄러움, 무안, 쩀, 수줍음, 쑥스러움

<표 3> 관용 표현의 뜻풀이 중심의 감정 분류

또 신체어와 감정의 대응 양상을 감정을 중심으로 살펴 볼 때, <표 4>와 같이 슬픔을 표현하는 관용 표현의 신체어가 다양하게 분포된다. 감정 관용 표현에서는 ‘가슴>눈물>애간장’이 관용 표현 구성에 있어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데, 일정한 신체어가 일정한 감정에의 대응 상태를 살펴보기는 어렵다.

	슬픔
코	코등이 시큰하다, 코가 시큰하다
눈(물)	눈물을 짜다, 눈물이 골짜나다, 눈물이 앞을 가리다, 눈물이 없다 눈에 이슬이 맺히다
목	목이 막히다
가슴	가슴이 아리다, 가슴을 찢다, 가슴이 저리다, 가슴에 멍이 들다 가슴에 피멍이 들다
창자	창자가 미어지다
간	애간장(을) 저미다, 간장이 끊어지다, 간장을 끊다
피	피에 울다

<표 4> 슬픔의 관용 표현에 쓰인 신체어

또 신체어를 중심으로 관용 표현을 살펴 볼 때도 <표 5>와 같이 한 신체어가 다양한 감정에 복잡한 대응을 보이므로 감정과 신체어의 일정한 대응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 신체어 ‘간’은 애(哀), 악(惡), 구(懼), 긴장(緊張), 경(驚), 희(喜)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애(哀)	간장을 끓다, 간장이 끓어지다
오(惡)	간에 차지 않다, 간장이 썩다, 간장을 썩이다
구(懼)	간이 작다, 간이 오그라들다, 간이 콩알만 해지다
긴장(緊張)	간을 녹이다, 간을 졸이다, 간을 태우다, 간이 마르다, 간이 타다, 간장을 녹이다, 간장을 태우다, 간장이 타다
경(驚)	간이 덜렁[덜렁/철렁]하다, 간이 떨어지다, 간담이 내려앉다, 간담이 떨어지다
희(喜) 긴장(緊張)	간이 녹다, 간장이 녹다
구(懼) 경(驚)	간담이 한 움큼 되다, 간이 벌름거리다, 간이 서늘하다

<표 5> 신체어 ‘간’과 감정의 대응 관계

그러므로 신체어를 중심으로 관용표현을 연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김향숙(2003:128)에서 은유를 통한 관용 표현 연구는 예를 들어 분노의 경우 ‘분노는 에너지의 증대이다’, ‘분노는 무기이다’, ‘분노는 불이다’, ‘분노는 열이다’의 개념은유로 유형화하였다. 분노에 대한 인지의미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분노는 에너지의 증대이다’의 관용 표현 예로 ‘눈을 까뒤집다, 눈이 돌아가다’ 등이 속해 있는데, 이를 에너지의 증대라고 본다면, ‘복장을 뒤집다’, ‘오장이 뒤집히다’는 왜 ‘분노는 열이다’의 개념은유에 속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박영순(1996:239)에서는, 은유는 두 사물간의 유사성이 있을 때 기존의 단어를 새로운 상황에 쓰는 언어를 말한다고 하였다. 은유의 형식은 두 개의 어휘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에서 ‘마음’과 ‘호수’는 유사성을 근거로 관계를 형성한다. 은유의 형식 중에는 이러한 두 개의 어휘의 관계성이 간접적으로 보이는 예도 있다. 예를 들어 ‘이론이 죽었다’는 ‘이론이 생명체이다’는 두 개의 관계

가 ‘죽었다’를 통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은유의 형식을 통해 볼 때 ‘신체어+서술어’의 구조에서 ‘서술어’는 개념은유로 접근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어휘이며, 이러한 서술어의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것은 다양한 관용 표현을 몇 개의 개념은유로 유형화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는 ‘신체어+서술어’의 합성에 의한 전체의미가 ‘긴장’과 ‘분노’인 관용표현에서 서술어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긴장’과 ‘분노’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제된 의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긴장은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으로, 의학적으로는 근육이나 신경 중추의 지속적인 수축, 흥분 상태이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긴장은 목소리, 얼굴 표정, 몸짓을 통해 몸으로 표현되기는 하나 관찰이 쉽지는 않다.

그에 비해 분노는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으로, Paul Ekman이 실시한 최초의 문화 간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분노의 원형은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이마의 중간을 향해서 아래로 누른다. 아래쪽 눈꺼풀은 눈의 안쪽 중앙을 향해 끌어 올리고, 입술이 팽팽해진다. 분노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긴장과 비교해서는 감정의 표현이 분명하다. 이러한 감정에 따른 차이가 관용 표현을 구성하는 데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우선 긴장과 분노의 감정 관용 표현의 서술어를 살피기 전에 관용 표현에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관용 형태가 있어 이들 중 기본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관용 표현에 서술어의 사동형, 주동형의 대응관계를 가지는 예가 많다. 예를 들어 녹다의 사동형은 ‘녹이다, 녹게 하다’인데, 감정의 관용 표현 [a+녹다]류도 [a+녹이다(녹게 하다)]의 사동형과 대응 관계를 이룬다.

- (1) ㄱ. 간을 녹이다, 간장을 녹이다, 구곡간장을 녹이다, 애간장을 녹이다
 ㄴ. 뼈다귀를 녹이다, 뼈를 녹이다

(1)은 ‘녹다’의 사동형으로 ‘간이 녹다, 간장이 녹다, 애간장(肝腸)이 녹다, 뼈다귀가 녹다’의 사동형이다.

	서술어	간(간장, 애간장, 구곡간장)	뼈(뼈다귀)
기본형	[눅다]	간이 눅다	뼈가 눅다
사동형	[눅이다]	간을 눅이다	뼈를 눅이다
1. 지나친 흐릿함. 2.몹시 애담.			

<표 6> 눅다의 기본형과 사동형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a+타다]도 [a+태우다(타게 하다)]의 사동형과 대응 관계를 이룬다.

- (2) ㄱ. 간을 태우다, 간장을 태우다, 애간장을 태우다, 애를 태우다
- ㄴ. 가슴을 태우다, 속을 태우다
- ㄷ. ?똥줄을 태우다, ?똥끝을 태우다, ?똥끝을 타들어가게 하다

(2ㄱ)는 ‘간이 타다, 간장이 타다, 애간장이 타다, 애가 타다’의 사동 형태와 모두 대응을 이루고 있고 (2ㄴ)도 사동 형태와 일정한 대응을 보이게 되는데, ‘복장이 타다’의 사동 형태도 어휘장의 빈자리에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ㄷ)는 ‘똥줄이 타다, 똥끝이 타다’의 사동 형태 설정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는 관용 표현의 화석화의 정도가 더 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2ㄷ)의 ‘똥줄, 똥끝’은 그 자체가 마음이나 생각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 (2ㄱ, ㄴ)와의 차이이다.

	서술어	간(간장, 애간장, 애)	(가슴, 복장, 속)	똥줄(똥끝)
기본형	[타다]	간이 타다	(가슴, 복장, 속)이 타다	똥줄이 타다
사동형	[태우다]	간을 태우다	(가슴, 복장, 속)을 태우다	?똥줄을 태우다
초조, 안타까움, 걱정, 긴장				

<표 7> 타다의 기본형과 사동형

‘간이 줄다, 애가 줄다’ 등과 대응되는 사동형 관용 표현도 있다.

- (3) ㄱ. 간을 줄이다, 애를 줄이다
- ㄴ. 애간장을 말리다, 애를 말리다, 피를 말리다, 속을 말리다

이를 표로 정리하였다.

	서술어	간(간장, 애간장, 애)	(피, 속)
기본형	[졸다]	간이, 애가 졸다	
사동형	[졸이다]	애간장을 졸이다	
기본형	[마르다]	애간장이 마르다	피가 마르다, 속이 마르다
사동형	[말리다]	애간장을 말리다	피를 말리다, 속을 말리다
초조, 안타까움, 걱정, 긴장			

<표 8> 졸다, 마르다의 기본형과 사동형

이와 같이 관용 표현은 서술어의 사동형 주동형의 대응 관계를 보이는 예들이 많다. 본고에서는 주동형을 기본형으로 설정하였다.

다른 예로, 신체어의 경우 속어로 유사한 구성을 하는 관용 표현이 있다. 분노의 감정을 의미하는 관용 표현 중에 [α+부라리다]가 있는데, 이 때 α는 ‘눈’으로, ‘눈’의 속어인 ‘눈알, 눈깔’ 등도 관용 표현을 구성한다.

(4) 눈을 부라리다, 눈알을 부라리다, 눈깔을 부라리다, 눈을 부릅뜨다

(4)의 [눈을 부라리다]가 기본형이고 ‘눈알을 부라리다, 눈깔을 부라리다’는 기본 의미가 동일한 일종의 변이형이다. [눈+부라리다]는 화를 낼 때 눈을 크게 뜨는 표정을 언어 표현에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³⁾ (4)의 기본형은 [눈을 부라리다]이다. 또한 ‘부라리다’와 ‘부릅뜨다’도 의미가 유사하다. ‘눈을 부라리다’나 ‘눈을 부릅뜨다’나 기본의미는 동일하다. ‘눈알을 부라리다, 눈깔을 부라리다’와의 관계도 있으므로 ‘눈을 부라리다’를 기본형으로 설정한다⁴⁾.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3) 감정을 나타내는 외부 신체어로 구성된 293개의 관용 표현 중에서 신체어 ‘눈’으로 구성된 관용 표현이 79개로 가장 많다.

4) 3장에서는 관용 표현의 기본형과 변이형들과의 대응은 필요한 경우에만 언급하기로 한다.

		눈
기본형	[눈을 부라리다]	눈을 부라리다
속어형	[눈알, 눈깔]	눈알을 부라리다, 눈깔을 부라리다
유의어형 (서술어)	[부릅뜨다]	눈을 부릅뜨다
분노		

<표 9> ‘눈알을 부라리다’의 기본형과 유사 관용 표현

3. 신체어로 구성된 감정의 관용 표현

긴장과 분노의 관용 표현은 신체어와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 긴장과 분노의 관용 표현에 있어서 어떤 의미자질의 서술어가 분포되며 또 어떤 신체어와 함께 관용 표현을 구성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3.1 긴장 관용 표현의 서술어

1) [열의 결과]의 서술어

‘긴장’의 관용 표현 중, ‘눅다’를 서술어로 하는 관용 표현에는 (5)가 있다.

(5) 간이 눅다, 간장이 눅다, 애간장(肝腸)이 눅다, 뼈다귀가 눅다

(5)에서 ‘간과 간장’이 유의 관계에 있다. ‘애간장(肝腸)’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애’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애간장’에서 ‘간장’은 ‘간’을 의미하며, ‘애’는 ‘창자 또는 간, 쓸개’의 옛말로 볼 수 있다.⁵⁾ ‘애’는 ‘초조한 마음 속, 몹시 수고로움’의 의미를 이미 지니고 있지만 생선의 간이나 쓸개를 ‘애’라 하고⁶⁾, ‘애간장’의 ‘애’는 초조한 마음, 몹시 수고로움의

5) 애는 ‘창자’의 옛말 또는 ‘간, 쓸개’의 옛말이다.

애(腸) : 뉘지비서 애긋는 소리롤 工巧히 짓느니오(誰家巧作斷腸聲)<杜초十六50>

애(膽) : 애롤(膽)<南明下 4> 애롤 일코(喪膽)<金삼五 32>

6) 애: 명태 따위의 간을 이르는 말. ¶기름지고 고소한 애<<선대>>/애에서 짠 기름.<<선대>>§
홍어엿국 : 홍어의 간을 끓인 국

의미로는 볼 수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애’를 신체어로 보았다.

‘애간장’의 ‘애’는 ‘창자, 간, 쓸개’로 볼 수 있는데 ‘애간장’은 ‘창자’와 ‘간장’의 합성이라기보다는 ‘간과 쓸개’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신체 구조상 맞다. 또는 ‘간’과 ‘간’의 합성으로 동어반복을 통해 ‘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애간장’의 ‘애’가 ‘간’이든지 ‘쓸개’이든지, ‘애간장’은 ‘간장’의 의미와 구별되는 의미가 없으므로 관용 표현에서 ‘애간장’은 ‘간’과 ‘간장’과 유의관계를 형성한다.

‘간과 간장, 애간장’이 유의 관계에 있고, 동일한 서술어에 의해 관용 표현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체 관용 표현도 유의 관계를 형성한다. ‘간이 녹다’는 ‘무엇이 마음에 들어 매우 흐뭇함을 느끼거나, 몹시 애가 타다’라는 뜻으로 ‘간이 녹다’와 ‘간장이 녹다, 애간장이 녹다’도 유의 관계에 있다.

(6) ㄱ. 그녀의 미소에 못 남성의 간(간장, 애간장)이 녹는다.

ㄴ. 주변에 온통 아부하는 놈들 친지라서, 아무 것도 모르는 김 사장의 뼈다귀가 녹을 지경이었다.

(6ㄴ)은 ‘간이 녹다, 간장이 녹다, 애간장이 녹다’의 서술어 ‘녹다’로 구성된 감정의 관용 표현의 또 다른 예이다. (ㄴ)은 ‘뼈다귀’와 ‘녹다’가 결합한 것으로 ‘간이 녹다’류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간’과 ‘뼈’와 다른 신체어이지만 동일한 서술어를 통해 구성되었기 때문에 유사 의미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관용 표현의 의미가 신체어보다는 서술어의 의미를 통해 일정한 감정에 대응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감정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에서 ‘녹다’는 ‘간, 간장, 애간장, 뼈다귀’와 함께 흐뭇함과 ‘애가 타다’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의 흐뭇함은 긍정적인 의미의 흐뭇함보다는 흐뭇함이 너무 지나쳐서 애가 탈 지경에 이른 과도한 감정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몹시 애타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몹시 애타게 하는 것의 의미는 [a+타다]와 유의 관계를 형성한다.

(7)은 [a+타다]로, 신체어에 ‘타다’ 서술어가 결합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 표현이다.

- (7) ㄱ. 간이 타다, 간장이 타다, 애간장이 타다, 애가 타다
 ㄴ. 가슴이 타다, 복장이 타다, 속이 타다
 ㄷ. 똥줄이 타다, 똥끝이 타다, 똥끝이 타들어가다

(7ㄱ)은 (5)의 ‘간, 간장, 애간장’의 유의어들이 서술어 ‘타다’와 결합된 관용 표현이다. ‘애’가 ‘타다’와는 관용 표현을 이루지만, ‘늑다’와는 관용 표현을 이루지는 않았음을 볼 수 있다. (ㄴ)의 ‘가슴, 복장, 속’도 유의 관계가 형성된다. ‘가슴’은 배와 목 사이의 앞부분을 가리키는 신체어이고, ‘복장’은 가슴의 한 복판이며, 속은 거죽이나 껍질로 싸인 물체의 안쪽 부분으로 사람의 몸에서는 배의 안 또는 위장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가슴, 복장, 속’이 모두 마음, 생각의 의미⁷⁾를 공통적으로 지닌다. (ㄷ)은 ‘똥줄, 똥끝’도 유의관계를 형성한다. ‘똥줄, 똥끝’은 똥자루의 앞부분으로 ‘똥’이나 ‘창자와 항문 사이 부분’을 의미한다.

(7)은 각각 유의 관계가 있는 신체어와 서술어 ‘타다’가 공통적으로 결합된 관형 표현으로, 초조, 안타까움, 걱정, 긴장의 감정을 의미한다.

- (8) 이런 기밀문서를 빠뜨리고 가다니. 지금쯤 그 녀석의 똥끝이 타고 있겠군(간, 간장, 애간장, 애, 가슴, 복장, 속, 똥줄).

(8)의 예문에서 ‘똥끝이 타다’와 다른 관용 표현들이 대치가 가능하다. [a+타다]와 유의 관계를 형성하는 관용 표현에는 [a+줄다], [a+마르다]가 있다.

- (9) ㄱ. 간이 줄다, 애가 줄다
 ㄴ. 애간장이 마르다, 애가 마르다, 피가 마르다, 속이 마르다

(9ㄱ)은 [a+줄다]로, [a+타다]의 a 즉, 신체어와 동일한 신체어 ‘간, 애’와 서술어 ‘줄다’의 결합으로 구성된 관용 표현으로서 초조, 안타까움, 걱정, 긴

7) 가슴이 떨리다, 가슴이 부풀다, 가슴이 뭉클하다, 가슴이 쨍하다...

장의 감정을 표현한다.

(9ㄴ)은 [a+마르다]로, 피를 제외하고는 [a+타다]의 신체어와 동일하며, 초조, 안타까움, 걱정, 긴장의 감정을 표현한다.

(10) 등이 달다, 애가 달다, 속이 달다, 몸이 달다

(10)은 신체어 ‘등, 애’와 신체의 내부 전체를 나타내는 ‘속’, 외부 전체를 나타내는 ‘몸’이 서술어 [달다]와 관용 표현을 이룬 예이다. [달다]는 타지 않는 단단한 물체나 몸 등이 열로 몹시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a+달다]는 사동형은 없고, 초조, 안타까움, 긴장의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 표현이다.

정리하면, 초조, 안타까움, 걱정, 긴장의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 표현에는 [a+눅다], [a+타다], [a+졸다], [a+마르다], [a+달다]가 있다. 관용 표현에 분포된 신체어 a에는 ‘간, 간장, 애간장, 애 / 가슴, 복장, 속’이 분포가 높고, [a+눅다]의 경우 a에 뺨(뺨다귀)가 포함되고, [a+타다]에서는 a에 ‘똥줄, 똥끝’이 결합되고, [a+달다]에는 ‘등, 몸’이 결합된 점이 특이한 점이다. 이들은 모두 초조, 안타까움, 걱정, 긴장의 감정을 표현한다.

[a+눅다], [a+타다], [a+졸다], [a+마르다], [a+달다]의 서술어는 [열]의 공통 의미자질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액체성]의 의미자질에 따라 [a+눅다], [a+졸다]는 [+액체성]이고, [a+타다], [a+마르다]는 [-액체성]이고, [달다]는 [±액체성]이다. 긴장의 관용 표현은 신체 내부어와 [열의 결과]의 의미자질을 지닌 서술어로 구성된 표현이 가장 중심이 되는 관용 표현이다.

2) [분출]의 서술어

긴장의 관용 표현에는 또 다른 신체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관용 표현이 있다.

- (11) ㄱ. 진땀이 나다, 진땀을 빼다, 진땀을 뺏다, 진땀이 흐르다, 진땀을 흘리다, 등에 식은땀이 나다, 등에 식은땀이 흐르다
 ㄴ. 손에 땀을 쥐다

(11)의 신체어는 정확히 신체어는 아니고 분비물인 ‘땀’이다. ‘진땀’은 몹시

애쓰거나 힘들 때 흐르는 끈끈한 땀이고, ‘식은땀’도 몹시 긴장하거나 놀랐을 때 흐르는 땀으로 힘들고 긴장될 때 흘리는 ‘땀’인 것은 공통적이다. ‘땀’과 서술어인 ‘나다, 빠다, 뿡다, 흐르다(흘리다), 쥐다’가 관용 표현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서술어의 공통 의미자질은 [분출(噴出)]로, 긴장 시에 몸에 땀이 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관용 표현이다.

3) [경직], [어두움], [두근거림], [축소], 기타의 서술어
긴장의 관용 표현의 또 다른 관용 표현이다.

(12) ㄱ. 얼굴이 굳다

ㄴ. 얼굴에 그늘이 지다

ㄷ. 가슴이 두방망이질치다, 가슴이 두방망이질하다, 가슴이 방망이질하다,
가슴이 콩닥거리다

ㄹ. 가슴이 콩알만하다, 간이 콩알만하다

ㅁ. 손톱 여물을 썰다

(12ㄱ)에서 ‘얼굴이 굳다’는 경직된 얼굴 표정을 그대로 표현한 관용 표현이고, (12ㄴ)에서 ‘얼굴에 그늘이 지다’는 낮빛이 어둡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관용 표현으로 ‘그늘이 지다’에서는 [어두움]의 의미를 지닌다.

(12ㄷ)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표현한 관용 표현들이다. 여기서 ‘가슴’은 ‘심장’을 의미할 것이다. 혈압 등에 의해 심장이 조이는 듯한 긴장감을 표현한 것이다. 공통적인 의미로 [두근거림]을 설정할 수 있다.

(12ㄹ)는 ‘가슴이 콩알만하다’는 극도의 긴장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슴’ 대신에 ‘간’으로 구성된 관용 표현도 있다. ‘콩알만하다’에서는 [축소]의 의미자질을 설정할 수 있다.

(12ㅁ)는 긴장되면 자주 발견되는 습관의 일종으로, 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관용 표현이다.

‘긴장’의 관용 표현은 신체 내부어와 외부어가 다 분포되어 있지만 신체 내부어가 더 많은 분포를 보이며 신체 외부어인 ‘가슴’의 경우는 신체 내부어로 분류되어야 할 정도로 ‘마음, 심장’의 의미를 대신해서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술어의 공통 의미자질은 [열의 결과], [분출], [경직], [어두움], [두근거림], [축소]의 의미자질로 이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서술어는 [열]의 공통자질을 지닌 서술어이다. ‘긴장’은 감정의 표현이 적극적이지 않고, 관찰이 쉽지 않은 특징을 지닌 감정인데, 이런 점이 관용 표현에 있어서도 내부 신체어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게 했으며 [열의 결과], [분출], [경직], [어두움], [두근거림], [축소]의 의미자질을 지닌 서술어가 관용 표현을 구성한 점은 긴장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3.2. 분노의 관용 표현 서술어

1) [전복(顛覆)]의 서술어

분노의 감정은 긴장의 감정보다는 더 확연히 특징이 드러나는 감정이고, 더 강한 감정이다. (13)의 예는 분노의 의미를 지닌 관용 표현이다.

- (13) ㄱ. 간을 뒤집다, 복장을 뒤집다, 속을 뒤집다, 오장을 뒤집다
 ㄴ. 눈알을 뒤집다, 눈을 까뒤집다, 눈을 뒤집다

(13ㄱ)은 [a+뒤집다(까뒤집다)]로, ‘간, 복장, 속, 오장’의 내부 신체어들과 결합된 관용표현이다. ‘복장’은 가슴의 한복판이나, 마음이 있는 자리를 의미하므로 외부 신체어지만 ‘가슴’은 마음이 있는 장소를 나타내므로 내부 신체어적인 면이 있고, ‘속과 오장’은 내부 신체어이다. (ㄴ)의 ‘눈(눈알)’은 [a+뒤집다]에서 유일한 외부 신체어이다.

(13ㄱ)은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고, (13ㄴ)은 주로 좋지 않은 일에 열중하여 제정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며, 욕(慾)에 해당된다. (13ㄴ)에서 ‘눈을 뒤집다’가 기본형이고 ‘눈’의 속어인 ‘눈알’이 결합된 ‘눈알을 뒤집다’나 ‘뒤집다’의 속어인 ‘눈을 까뒤집다’는 기본형의 속어형이다.

- (14) ㄱ. 간이 뒤집히다, 복장이 뒤집히다, 속이 뒤집히다, 오장이 뒤집히다
 ㄴ. 눈알이 뒤집히다, 눈이 까뒤집히다, 눈이 뒤집히다

(14)는 (13)에 대응되는 피동 형태가 있다. 이들은 서술어 형태는 동일하지만 나타내는 감정에는 차이가 있다. 앞의 감정 분류에서는 적당한 감정을 찾기 어렵다. [내부 신체어(간 제외)+ 뒤집히다]는 ‘분노’의 감정을 의미하고, [간이+뒤집히다]는 부정적인 대담함을 의미하며, [눈+뒤집히다]는 ‘잘못된 열중, 욕심’을 의미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간(간덩이, 간장)	복장, 속, 오장	눈
기본형	[뒤집다]	×	복장을 뒤집다, 속을 뒤집다, 오장을 뒤집다	눈을 뒤집다
	[뒤집히다]	간이 뒤집히다	복장이 뒤집히다, 속이 뒤집히다, 오장이 뒤집히다	눈이 뒤집히다
		부정적 대담	분노	욕(慾)

<표 10> ‘뒤집다’의 관용 표현

이때 서술어 ‘뒤집다, 뒤집히다, 까뒤집다’의 공통 의미 자질은 [전복(顛覆)]이다. 간을 제외한 내부 신체어와 [뒤집다(까뒤집다)]의 관용 표현은 ‘분노’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2) [확장]의 서술어

분노의 감정을 의미하는 관용 표현 중에 [a+부라리다]가 있다. 이 때 ‘a’는 ‘눈, 눈알, 눈깔’로, [a+부라리다]에서 ‘눈’이 유일한 신체어이다.

(15) 눈을 부라리다, 눈알을 부라리다, 눈깔을 부라리다, 눈을 부릅뜨다

(15)는 ‘눈을 부라리다’가 기본형이고 ‘눈알을 부라리다, 눈깔을 부라리다’는 ‘눈’의 속어형이 관용 표현을 구성한 예이다. [눈+뒤집다]는 ‘헛된 열심, 욕심’인데 비해 [눈+부라리다]는 화를 낼 때 눈을 크게 뜨는 표정을 언어 표현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⁸⁾ (15)의 기본형은 ‘눈을 부라리다’이고 나머지 ‘눈

8) 감정을 나타내는 외부 신체어로 구성된 293개의 관용 표현 중에서 신체어 눈으로 구성된 관용 표현이 79개로 가장 많다.

알을 부라리다, 눈깔을 부라리다, 눈을 부릅뜨다’는 속어형, 유의어형이다.

기본형	눈
[부라리다]	눈을 부라리다
분노	

<표 11> 눈을 부라리다류의 기본형

이때의 서술어 [부라리다]와 [부릅뜨다]는 외부 신체어 ‘눈’과 함께 관용 표현을 구성하는데, 이때 서술어의 공통적 의미자질은 [확장]이다. ‘분노’의 감정은 강한 감정으로, 일차적으로 눈에서부터 ‘분노’의 감정이 표현되고, 눈을 [확장]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면이 그대로 관용 표현에 반영되어 있다.

3) [직립]의 서술어

분노의 관용 표현에는 (16)의 관용 표현이 있다.

- (16) ㄱ. 눈이 곧두서다, 눈알이 곧두서다, 눈깔이 곧두서다
- ㄴ. 머리칼이 곧두서다, 머리털이 곧두서다

(16)은 [a+곧두서다]로, a에 따라 ‘분노와 무서움’의 감정으로 나뉘어 진다. [눈+곧두서다]는 ‘분노’를, [머리칼+곧두서다]는 ‘무서움’을 의미한다. [눈+곧두서다]는 [눈+부라리다]와 유의 관계에 있다. (16ㄱ)에서 ‘눈이 곧두서다’가 기본형이고 ‘눈알이 곧두서다, 눈깔이 곧두서다’는 모두 속어형이다. (16ㄴ)은 ‘무서움’을 의미하는 [머리칼+ 곧두서다]에도 ‘머리칼’이 기본형이다.

(16)에서 ‘서다’의 사동 형태가 ‘세우다’이다. 관용 표현에서도 사동 대응이 보인다.

- (17) ㄱ. 눈을 곧두세우다, 눈알을 곧두세우다, 눈깔을 곧두세우다
- ㄴ. *머리칼을 곧두세우다, *머리털을 곧두세우다

(17)은 (16)의 사동 형태인데 (16ㄱ)의 분노를 의미하는 [눈+곧두서다] 관

용 표현은 사동 형태가 가능한데 (16ㄴ)의 [머리카갈+곤두서다]는 사동 형태가 성립되지 않는다.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눈	머리카락
[곤두서다]	눈이 곤두서다	머리카갈이 곤두서다
[곤두세우다]	눈을 곤두세우다	*머리카갈을 곤두세우다
	분노	무서움

<표 12> ‘눈이 곤두서다’의 관용 표현

[α+핏발(대)이 서다]는 서술어 ‘핏발이 서다’와 신체어 ‘눈, 목’이 결합되어 분노의 관용 표현을 구성하고 있다.

(18) 눈이 핏발이 서다, 눈에 모가 서다, 목에 핏대가 서다

(18)의 ‘눈이 핏발이 서다’나 ‘눈에 모가 서다’는 눈을 통해서 ‘분노’의 모습이 그대로 관용 표현에 반영에 된 것이고 ‘목에 핏대가 서다’는 ‘분노’가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므로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표현한 관용 표현이다. 두 관용 표현의 공통점은 ‘피’로, ‘분노’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핏발과 핏대’는 교체되지 않는다.

(19) *눈에 핏대가 서다, *목에 핏발이 서다

[α+핏발(대), 모가 서다]의 관용 표현은 서술어 ‘서다’의 사동 형태로 구성된 [α+핏발(대)·모를 세우다]이다.

(20) 눈에 핏발을 세우다, 눈에 모를 세우다, 목에 핏대를 세우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핏발(대), 모가 서다]		눈	목
기본형	[핏발(대)이 서다]	눈에 핏발이 서다	목에 핏대가 서다
사동형	[핏발(대)를 세우다]	눈에 핏발을 세우다	목에 핏대를 세우다
기본형	[모가 서다]	눈에 모가 서다	
사동형	[모를 세우다]	눈에 모를 세우다	
		분노	분노

<표 13> [a+핏발(대)이 서다]의 관용 표현

분노의 관용 표현인 [a+곤두서다]와 [a+핏발(대)이 서다]에서 서술어 ‘곤두서다’와 ‘서다’는 [직립]의 공통 의미자질을 상징할 수 있다.

4) [불 생김]과 연관된 서술어

분노의 관용 표현 중에 또 다른 (21)의 관용 표현이 있다. [a에 불(쌍심지)이 나다]는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으로 서술어 ‘불이 나다’와 신체어가 결합하여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다.

- (21) ㄱ. 눈에 불이 나다, 눈에 천불이 나다, 가슴에서 불이 나다, 가슴에서 불이 일다
 ㄴ. 눈에 쌍심지가 나다

(21)의 관용 표현은 분노를 불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 (21ㄴ)의 ‘천불’은 천 곳에서 일어난 불길이라는 뜻으로,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일어난 큰 불길을 의미한다. (21ㄱ)은 ‘눈에 불이 나다’가 기본형이고 ‘눈에 천불이 나다’는 강조를 위한 과장된 표현이다. ‘가슴에서 불이 나다’, ‘가슴에서 불이 일다’도 신체어 ‘가슴’과 ‘불이 일다’는 분노의 감정을 반영한 관용 표현이다.

(21ㄴ)의 ‘눈에 쌍심지가 나다’에서 ‘쌍심지’는 두 개의 심지를 나타내며 두 눈에 불이 이글거릴 정도의 화를 의미한다. ‘눈에 쌍심지가 나다’는 변이형이 있다⁹⁾.

긴장의 서술어의 의미에서는 [열]의 의미 속성을 지닌 ‘타다, 녹다’ 등이 있었는데 분노의 서술어에서 ‘타다, 녹다’는 [열의 결과]라면, [불(자체)]를 의미

9) 눈에 쌍심지가 나다, 눈에 쌍심지가 뜬다

하며, 좀 더 강한 열을 동반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살펴본 내용을 <표 14>에 정리하였다.

[a에 불(쌍심지)이 나다]	눈
[불이 나다]	눈에 불이 나다
[쌍심지가 나다]	눈에 쌍심지가 나다
	분노

<표 14> [a에 불(쌍심지)이 나다]의 관용 표현

(21)도 대응되는 사동 표현이 있다.

(22) ㄱ. 눈에 불을 켜다

ㄴ. 눈에 쌍심지를 돋우다, 눈에 쌍심지를 세우다, 눈에 쌍심지를 올리다, 눈에 쌍심지를 켜다

(22)에서는 [a에 불(쌍심지)이 나다]의 사동 형태 [a에 불(쌍심지)를 켜다, 돋우다]와의 대응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신체어가 포함된 관용 표현에 불을 비유해서 분노를 과장되게 표현해 주고 있다. 이때 분노의 관용 표현에서는 [불이 생김]의 공통 의미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

5) [돌출]의 서술어

분노의 관용 표현 중에 (23)의 소극적인 분노의 표현도 있다.

(23) ㄱ. 입이 나오다, 주둥이가 삐죽 나오다, 입을 열 자나 빼고 있다, 주둥이를 열 자나 빼고 있다

ㄴ. 불이 붓다, 불에 뱀을 물다

(23)의 관용 표현은 ‘삐짐’의 감정 관용 표현이다. ‘삐짐’은 약한 ‘분노’로 이를 표현하는 관용 표현에는 신체어 ‘입’이 추가 되며, ‘불’도 관용 표현을 구성하고 있다. 이때 ‘삐짐’의 관용 표현을 구성한 서술어 ‘나오다, 빼다, 붓다’의 공

통 의미자질은 [돌출]이다.

분노의 감정 관용 표현은 긴장의 감정 관용 표현과 비교해서 볼 때 외부 신체어 중 ‘눈’의 분포가 매우 높고, 내부 신체어의 분포는 낮은 편이다. 분노의 감정 관용 표현을 구성한 서술어는 [전복(顛覆)], [확장], [직립], [불 생김], [돌출] 등의 공통 의미자질을 지닌 서술어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신체어 중심으로 감정의 관용 표현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감정 표현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고, 관용 표현간의 의미관계를 고찰하고자 했다. 본고에서는 긴장(緊張)과 분노(憤怒)의 의미를 지닌 관용 표현의 서술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긴장’의 관용 표현은 신체 내부어와 외부어가 다 분포되어 있지만 신체 내부어가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 서술어의 공통 의미자질은 [열의 결과], [분출], [경직], [어두움], [두근거림], [축소]의 의미자질로 이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서술어는 [열의 결과]의 공통자질을 지닌 서술어이다. ‘긴장’은 은근한 열의 결과가 있고, 분비물의 분출이 동반되고, 얼굴은 굳고 어두우며, 가슴은 두근거리거나 축소되는 신체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용 표현에서 보여주고 있다.

분노의 감정은 긴장의 감정보다는 더 확연히 특징이 드러나는 감정이고, 더 강한 감정이다. 분노의 감정 관용 표현은 긴장의 감정 관용 표현과 비교해서 볼 때 외부 신체어 중 ‘눈’의 분포가 매우 높고, 내부 신체어의 분포는 낮은 편이다. 분노의 감정 관용 표현을 구성한 서술어는 [전복(顛覆)], [확장], [직립], [불 생김], [돌출] 등의 공통 의미자질을 지닌 서술어이다. 이러한 감정에 따른 차이가 관용 표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부 신체어와 외부 신체어의 분포 차이를 가져왔고, 서술어의 의미에 있어서도 관찰이 어려운 긴장의 표현은 소극적인 서술어의 의미자질이, 관찰이 비교적 쉬운 분노의 표현은 적극적이고 강한 서술어의 의미자질이 있다.

참고문헌

- 강위규(1998). 국어 관용표현 연구. 세종출판사.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준기·김향숙(2003). 현대국어 관용어 연구. 한국문화사.
- 김향숙(2003). 한국어 감정표현 관용어 연구. 한국문화사.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국어학회총서. 태학사.
- 박영순(2004). 한국어 의미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영준·최경봉 편저(1997). 관용어사전. 서울 : 태학사.
- 우형식(1988). “신체어의 의미론 : 어휘의미론적 분석 시도”, 연세어문학 21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291-319.
- 이경자(2006). 우리말 신체어 형성 2. 충남대학교출판부.
- 임지룡(2007). 말하는 몸-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임팔용(2004). 한·일 신체어휘 관용구의 대조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정희자(2002). “관용어에 나타난 신체어 의미 확장,” 외대논총 제24집. pp.355-378.
- 홍기선(2000). “영어의 관용어구와 논항구조,” 담화와 인지. 제7권 2호. pp.105-130.
- Claudia Hammond(2007).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상원 역. 사이언스북스.
- Lokoff & Johnsom(1980).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노양진·나익주 역(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 Robert Plutchik(2004). 정서심리학. 박권생 역. 학지사.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화 번호: (033) 250-7252
전자 우편: nabigail@hanmail.net

원고 접수일: 2008년 7월 18일
원고 수정일: 2008년 12월 14일
게재 확정일: 2008년 12월 22일